

연포장 업체, 새로운 세계로의 도전

New Challenge in Flexible Packaging Industry

포장산업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총 수요의 65% 이상은 식품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포장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식품산업의 성장과 국가 GDP의 급성장과 함께 40여년간을 계속 성장한 결과, 이제 개발 성장에 한계에 이르러 식품산업에만 의존하여서는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시대를 맞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도 내수산업보다 수출산업의 비중이 커서 수출확대에 따라 아주 빠른 속도로 포장산업도 발전되어 수출을 지원하는 포장산업이 아니라 이제는 포장물 자체가 당당하게 수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점차 확대되어 완전한 의존산업이 아닌 독립산업으로 성장되었다.

세계적인 포장산업의 통계를 볼 때 포장산업이 GDP에 차지하는 비율은 최고 2.4%를 정점으로 점차 떨어져 미국의 경우 현재 1.4%대에 이르게 되었고 최고 성장에서 점차 점유율이 떨어지게 되면 기술의 한계, 개발의 한계, 경쟁력의 한계에 직면하고 사업경영 형태가 다변화되어 경포장 산업분야는 금속, 유리, 플라스틱 포장산업을 공유하고 종이·판지 가공업체를 플라스틱 필름이나 Sheet을 연포장 업체는 반대로 종이·판지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이들 산업을 모두 공유하는 글로벌 사업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은 우리가 쉽게 보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의 고도성장과 소비자 기호 및 유통시장에 맞추어야 하는 현대 경영에 있어서 매우 자명하고 당연시 되고 있는 현상으로서 최근 5년 사이에 우리나라 포장 산업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매우 분야가 넓은 포장 전산업을 망라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포장산업 중 가장 식품산업의 의존도가 크고 기술발전이 빠르고 응용



김영호

한국포장기술인협회 회장
한국포장기술연구소 소장
포장 기술사

분야가 많은 연포장 관련 산업에 대하여 기술코저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본의 거대 포장회사를 소개하고 연포장 산업이 새로운 산업분야로 진출하는 사업분야를 열거하고자 한다.

우선 일본의 돗판 인쇄, 대일본 인쇄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 회사는 처음 종이와 판지를 소재로 하는 문화사업과 포장산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회사지만 현재 연포장 사업까지를 총괄하는 포장전문 회사이다.

이들 회사는 규모, 개발력, 품질 우위면에서 타회사를 압도하면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포장을 재질에 관계없이 개발, 생산, 공급하므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한계성에 도달 식품포장의 점유율을 80%로 맞추어 현상을 유지하면서 축적된 기술과 개발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부가가치가 큰 전기·전자재료, 메디칼 분야, 건설·인테리어·토목 산업분야, 문방구·증권 분야 등에 진출 점진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

이전에는 연포장 산업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이 될 수 없었으나 5년전부터 한국과 당당히 경쟁을 하고 있어 동남아 국가나 중국외에 일본도 연포장 분야 수출의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어 실제 북미국가나 대양주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는 새로운 경쟁자를 추가하게 되었다.

연포장 산업이란 종이·판지·플라스틱 필름·부직포, 금속박 등의 유연한 재료에 코팅, 라미네이팅, 프린팅, 스릿팅·컷팅·편칭·엠보

싱 등의 가공방법과 기술을 총합하는 산업으로서 새로운 산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이들 산업 발전에 필수불가결의 영역을 관장하고 있다.

즉 사용하는 소재, 컨버팅에 필요한 재질, 기술, 설비 및 관련분야의 제반 기술을 축적하고 있어 신산업 분야에 필수 불가결한 단소경박 최상의 품질, 우수한 디자인, 사용상 편리성 등의 소비자의 Needs의 충족은 물론 환경친화성 제품을 개발, 생산, 보급하는데 있어서 주객이 바뀔 정도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케 하는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기여도는 점차 급속적으로 증진되고 있다.

〈전기·전자재료 분야〉

전자재료의 경우 IT산업의 고도성장, 가전제품의 고급화 등에 힘을 얻어 이들 제품의 Hard와 Soft에 이용되는 자재와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기분야에도 각종 전동기에 사용되는 케이블, 절연체와 코팅제, 배전재 등 실로 많은 분야에 응용되는 자재와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 필름 : 현재 SKC를 위시하여 KOLON 등은 연구소와 사업부에 전자재료 사업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연구개발은 물론 이미 SKC의 경우 PEN 필름은 국내 수요는 물론 수출까지 하고 있다.

이들 제품에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내열, 절연성 필름은 PVC에서 시작되어 PET, PEN, PI 필름까지 진출하였으며 PI FILM도 2004년까지는 국내 생산이 될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SKC, KOLON외의 PET 필름 메이커도 이 분